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휴먼 네트워크 필요

(주)스마트미디어 이민휘 기술이사



(주)스마트미디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쇄물을 매개로 영상을 보여주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인쇄물과 함께 구동되는 다양한 형태의 엔진(스토리워킹과 스마트 워킹이 가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미디어는 국내 유일의 출판물과 연동되는 엔진 개발사로 다양한 파트너사의 요구에 따라 인쇄·출판물을 매개로 구동하는 엔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QR 코드가 아닌 스마트 QR 입니까?

글에 동영상과 양방향 프로세스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QR 코드가 아닌 스마트 QR이어야 합니다. 글과 함께 인쇄될 QR 코드(AR태그, RFID 포함)는 반드시 Web 콘텐츠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웹 관리와 리뉴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URL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발행되는 QR 코드는 웹 콘텐츠를 보여 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QR 코드가 아닌 스마트 QR이어야 합니다. 스마트 QR은 글과 인터넷 콘텐츠를 비인딩해주며 출판물을 위한 QR 코드의 체계적인 생성과 관리 그리고 웹 주소의 변경에도 연동시킬 수 있는 관재와 제어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생성하는 QR과 구분해서 스마트 QR로 부릅니다.

또한 스마트QR은 URL만을 단순 링크하는 보통 QR코드가 아닙니다. 스마트QR은 지면과 인터넷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개하도록 알고리즘화한 스마트엔진에서 사용하는 QR코드입니다. 따라서 지면과 웹 콘텐츠를 조합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mart working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경우 업무처리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QR은 웹과 동영상이 사라지는 미아 QR코드와는 다릅니다. 스마트QR은 유효기간 동안 콘텐츠와 연동을 보증하고 이러한 콘텐츠 보증서비스는 스마트QR과 연동하는 동영상과 웹페이지의 변경과 수정뿐 만 아니라 웹 페이지 주소 변경에도 인쇄된 스마트QR이 약속된 콘텐츠와 연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스마트미디어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다수 독자의 반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다수의 독자와 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미디어는 독자를 63개 표준유형과 독자정보의 유무에 따른 128가지 상황에 따라 대응하도록 설계된 IAS-CRM을 이용, 독자의 반응패턴을 읽고 고객이 만족해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독자의 반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QR코드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 캐리컬처, 포토그래퍼, 오디오 전문가, 영상전문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전문가 그룹이 협업할 수 있는 휴먼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도 중 하나가 스마트미디어의 부설 스토리텔링기술연구소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 Open Publishing Lab입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사람들... 작가, 캐리컬처, 포토그래퍼, 오디오 전문가, 영상전문가 등 다양한 콘텐츠 헌업 종사자들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남아공 월드컵 때 정대세의 눈물을 통해 세계각지의 한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상물 The Best Tool Internet입니다. The Best Tool Internet은 일본에 태어나 한국국적을 가지고 북한의 대표선수로 뛰어야 했던 정대세의 눈물을 통해서 한 반도에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The Best Tool Internet은 인터넷을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려놓은 작품입니다.

잡지나 인쇄광고물 등에는 QR 코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요.

텍스트는 책으로 읽고 영상은 TV와 같은 큰 디스플레이어로 보여 줄 때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책(인쇄물)과 TV(디스플레이)의 결합은 독자들의 읽고 학습(or work)하는 패턴을 고려하였을 때 뉴미디어로 혁신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별도의 교육 없이 친숙한 방식으로 뉴미디어에 진입할 수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인쇄기술의 뉴스타트

인쇄 + IT (주)스마트미디어

■PUBLISHER ■CLOUD COMPUTING ■SERVICE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